



2012 이와테 국제교류

봄 Vol.72



특집▶ 우리들의 3·11 ~부흥을 지원하는 외국인~

1-2 외국인 블런티어

~토오노 마고코로넷을 통한 활동~

3 Facebook 으로 퍼지는 지원의 고리

4 지역을 위해서 산다

5-6 지원은 가지각색

7-8 클로즈업

인정NPO법인 난민지원협회

NPO법인 야마다초 국제교류협회

9 도설 진재 후 협회에서는

10 평성 24년도 사업계획

특집 우리들의 3·11~부흥을 지원하는 외국인

동일본대진재·해일이 발생한 지 1년. 연안부에는 국내외에서 지원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도움이 되고 싶다」「응원하고 싶다」 이와테현의 부흥을 향한 마음은 일본인도 외국인도 같습니다. 부흥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을 특집으로 합니다.

외국인 불란티어 ~ 토오노 마고코로넷에서 활동

진재(震災) 직후부터 개인 불란티어를 받고 있는 토오노 마고코로넷. 국내외의 많은 외국인이 등록을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오노 마고코로넷을 거점으로 한 단·장기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외국인 불란티어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단기 불란티어

「진재 전에는 어떤 마을이었는지 상상조차 안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출판한 사진집에 있었던 산 위에서 찍은 (오즈치쵸)아카하마의 선명한 붉은색, 푸른색의 기와지붕집이 밀집해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뉴욕 출신의 피터 폴치노씨는 작년 10월부터 약 1개월 반 피재지(被災地)에서 불란티어를 하고 있습니다.

진재 발생시에는 교토의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유학을 끝내고 3월 말에 귀국 준비로 우체국에 있어서 지진이 발생한 지 전혀 몰랐지만, 일본인 친구에게 받은 메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2008년에 모리오카시의 이와테일보사에서 2개월간 기업 연수를 한 적이 있고, 신세를 진 지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했지만 기다리는 편이 좋다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적십자나 여러 단체에 메일을 보내도 거의 답장이 없었고, 답장이 와도 피재지에서 할 일이나 받아줄 곳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자가 끝나는 3월 말에 미국 귀국. 그 후 5월, 교토에 있는 친구가 토오노 마고코로넷에서 개인 불란티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름방학 후에 사람이 줄어드는 10월부터 시작하는 불란티어를 인터넷에서 신청하였습니다. 8월에 미국을 출발. 배, 버스, 히치하이크로 2개월 걸려서 토오노 시에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은 하드라고 불리는 육체노동과 그 이외에 일은 소프트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드는 잔해 철거, 진흙 퍼내기를 했습니다. 개인 주택이나 숲 속 등에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쓰레기 잔해가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덜 힘들다고 불리는 소프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고코로(참마음) 마을이라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휴경지를 경작하여 꽃을 심었습니다. 소프트 활동으로 지름 90센티의 거대 프라이팬으로 큰 핫케익을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구웠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여름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가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대 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면서 꿈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 있는 피재지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터 폴치노 Peter Porcino

미국 스탠퍼드대학 졸업. 2008년 이와테일보사 하계 연수생으로서 이와테 체재. 2009~2011년. 리츠메이칸대학 일본문학연구과 유학. 1986년 출생. 뉴욕 출신.

장기 블란티어

대만 타이난시 출신의 차이 우화(蔡雨樺)씨는 작년 8월부터 토오노 마고코로넷 오츠치 생활지원팀의 일원으로서 오츠치쵸 키리키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재 당일에 도쿄의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던 차이 우화씨는 해일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블란티어 경험은 없었지만 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인터넷에서 발견한 일본재단의 3박 4일 아시유(즉옥 온천) 블란티어에 참가. 계속 일을 해야할 지 고민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아시유 블란티어로써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리쿠젠타카타시와 오츠치쵸에 있는 피난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피재지를 봤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피재지에서 도쿄로 돌아갈 때마다 너무 다른 상황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비자 관계로 일단 귀국. 8월에 개인적으로 토오노 마고코로넷에 등록하여 일본에 왔습니다. 오츠치 생활지원팀의 발족과 동시에 키리키리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피재지에서 블란티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친척은 찬성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은 어머니에게는 도쿄의 양로원에서 블란티어를 하고 있는걸로 해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일본에 갈려고 했을 때도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현재 주된 활동은 마음의 케어, 요망 조사, 아이 돌보기, 병원 송환, 물건 사기 등의 일입니다. 혼자 생활하고 종일 가만히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방언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도 있지만, 마음만 있다면 전해지게 됩니다.

대만의 자선단체가 제일 먼저 의연금을 피재자에게 직접 전해주는 활동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미야코시에서 1일 2,500명에게 직접 의연금을 전해주었을 때는 통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어 실력을 높여서 다른 생활 지원이나 마음의 케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장기적으로 전념하여 활동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Facebook 에 「마음만 있다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다언어로 세계에서 오는 지원에 대해 감사와 현재 상황을 발신하는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차이 우화(蔡雨樺)

파티쉐를 목표로 독일. 도쿄의 일본어학교를 거쳐 도쿄제과전문학교 졸업. 지인의 소개로 도쿄의 레코드회사에서 대만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담당. 1986년 타이난시 출신

토오노 마고코로넷 대표(취재 당시) 사토 마사이치씨의 이야기

처음부터 일본인, 외국인에 관계없이 개인 블란티어의 접수를 받아왔습니다. 자세한 인원은 모르지만, 30 개국 500 명정도 됩니다. 홍콩과 한국에서 온 단체도 있었습니다. 아오모리현 미사와의 그룹과 호쿠리쿠지방에서 단체 결혼한 부부 가족 등 계속적으로 참가해주는 외국인 블란티어도 있습니다.

마음의 케어 전문가 그룹은 현장에서 전문적인 부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적도 있고, 잔해 철거 현장에서는 일본어의 구령 소리를 모르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령 소리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식사 등은 자신이 준비해서 가져오고, 외국인은 통역자와 동행하거나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 조건입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오노 피재지 지원 블란티어 네트워크 「토오노 마고코로넷」

〒028-0527 遠野市大工町 10-10 遠野浄化センター内 TEL 0198-62-1001 FAX 0198-62-1002

Facebook으로 퍼지는 지원의 고리

영어로 얻을 수 있는 진재 정보가 부족했을 때, 많은 현내 거주 외국인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브라이언씨가 만든 Facebook 페이지의 Aftershocks Iwate 그룹을 이용했습니다.

*Facebook...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의 교류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하나

업무일로 미야코시에 있는 교실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YMCA를 통하여, 진흙 제거와 잔재 철거, 집과 부서진 건물 청소에 몇 번 참가했습니다. 밤에는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아침에 불란티어를 하러 갔다 와서 밤에는 다시 일.

YMCA에서는 세끼 식사가 나오고, 묵을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내외에서 개인으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진흙 제거는 일본어를 못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묵을 곳과 식사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면 그 교장의 상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Facebook이 중심적인 정보원이었습니다. 모국의 가족과 친구는 제 안부를 알 수 있었고, 국내외의 친구에게서 오는 메시지로 정전 중이라도 제가 처해있는 상황, 연안부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뭘 먹었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진재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지진 3, 4 일

후에 제 개인Facebook 페이지에 Aftershocks Iwate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10명 정도 초대하였고, 그 10명이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그룹 내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와테현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아키타, 아오모리, 해외에 있는 사람도 오게 되었습니다.

연안에 있는 외국인의 안부 확인으로 시작되어, 피해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 물자를 전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란티어 정보도 점차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Facebook은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매체라서 연락이나 질문이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피해지로 향하는 출발시각을 써놓으면 그것을 본 사람이 지원물자를 그 사람에게 가져가서 피난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연금, 방한복, 식료품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진재 정보를 얻기 위해서 Aftershocks Iwate 그룹을 만들었지만 제가 필요한 정보는 다른 사람도 필요로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찾기 쉬운 곳이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해주시기도 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모리오카에 살고 있지만 처음 만나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테와 오랜 인연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별로 없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와테가 부흥할 때까지 계속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복원 작업 중
(사진제공 : 모리오카 YMCA 미야코 불란티어센터)



브라이언 콜파 Bryan Kolpa

미국 바몬드주 출신. 일본 거주 4년. 영어회화교실 강사. 모리오카시 거주. 「산이 가깝고, 강이 있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모리오카는 프랑스로 『녹색의 산』이라고 불리는 바몬드주와 비슷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산다

「여기가 고향」. 외국어 지도 조수인 바비씨는 「그날」 보다 오래전부터 계속 고향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후나토에서 생활하던 중 재해를 겪고, 오후나토에 남아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흔들림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에게 바로 책상으로 기어들어 가라고 지시하고, 두 명씩 교실 밖으로 피난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 대책 등을 위한 훈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을까」 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 질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재 후, 이와테현내의 외국어 지도 조수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시 귀국하고, 그대로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피난 권고나 귀국 명령이 각국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오후나토시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남았어?」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감을 느껴서」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진재 다음날부터 게센지역의 외국어 지도 조수의 안부 확인으로 분주했습니다. 자전거로 길이 아닌 곳을 2 시간 걸려서 리쿠젠타카타시에 도착했습니다. 5 일 후에는 이 지역의 외국어 지도 조수들은 모두 대피하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일했던 지도 조수인 몽고메리 덕선씨가 해일에 휩싸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오카시로 이동한 후 인터랙(외국어 지도 조수 소개 회사)에 근무하며, 현 내에 있는 외국어 지도 조수의 안부 확인, 귀국할지 남을지에 대한 의사 확인, 귀국 수단의 조사, 새로운 근무처의 조정을 도왔습니다.

저 자신도 근무지를 내륙부에 있는 학교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영어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오후나토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 온 것은 나 혼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고 생각하여 오후나토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9 개월이 지난 지금, 한편으로는 많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마음의 케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진재 직후부터 「인터 이와테 잉글리쉬 라이팅 네트워크」 라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영국과 피지의 학교에서 이와테를 위한 편지와 그림을 받거나, 아니면 이와테에서 영어로 Thank you 편지를 보냅니다. 이 활동은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편지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기분을 외부로 발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치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카운셀러는 같은 학생입니다. 내륙의 고등학생은 연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싶어하고, 연안의 고등학생은 체험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요망이 맞아 연안과 내륙의 고등학생들의 인연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리얼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에 이와테에 살았던 외국어 지도 조수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외의 학교에도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음악 수업을 통해서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영어로 기분을 표현하는 워크숍도 열고 있습니다. 간호시설에서도 개최하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으로 서포트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일본에서 정식적인 선생님으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교사로서의 프로 의식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저의 생활 기반, 고향이라고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후나토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바비 베일리 Bobby Bailey

오후나토시 거주. 영국 링컨셔주 출신. 평생 20 년부터 외국어 지도 조수로서 오후나토고등학교, 게센코료특별지원학교 등에서 근무.

지원은 가지각색

진재 이후, 피재자인 이와테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카지타 샨씨 Janine Kajita
스위스 출신. 모리오카시 거주.

스위스에 있는 누나가 모아 준 의연금으로 속옷, 크림 등을 준비했습니다. 카마이시에 갈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 못하고, 미야코시에 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 개와 대피소인 신사에 갔습니다. 때마침 49 일재였기 때문에 꽃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시 올 때 무엇이 갖고 싶은지 물어보니 진공 청소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연휴 때 가지고 갔습니다. 그 때 물었던 분과 저 사이에 믿음에 대한 무언인가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모리오카의 「니트 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뜨개질한 것을 오사카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설 주택에서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뜨개질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이 도는 활동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다에는 배, 그 다음에 밭, 그리고나서 집을 짓는 아이누의 지혜를 살린 도시 만들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지에 갈 수 없어도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것을



말콤 라센스씨 Malcom Larcens
캐나다 출신. 하나마키시 거주.

미야코시에서 상점과 공원의 청소를 하거나 리쿠젠타카타시 등에 지원물자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의 볼런티어단체 「All hans Volunteer」가 「Habitat」와 협력하고 있는 주택 재건 활동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 다음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없어지더라도 다시 새롭게 바뀌어 태어납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어린새가 되어 나타나는 불사조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등 큰 비극을 딛고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적인 도시 만들기를



딘 루츠라씨 Dean Ruetzler
미국 출신. 모리오카시 거주.

진재 다음날, 아이나에 가서 정부의 지시 등을 영어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모리오카시에 사는 친구와 함께 지원 물자를 오후나토시, 카마이시시, 리쿠젠타카타시 등에 전달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셀터 박스」의 통역, 아키타의 외국어 지도 조수들이 만든 볼런티어단체를 도왔습니다.

병원과 학교는 언덕에 지어져야하지만,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다 근처에 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해일을 막을 수 있는 미래적인 도시 만들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의 명언에 「고난은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와테가 정말 좋아요!



안 프리디씨

영국 출신. 모리오카시 거주.

8 월에 미야코시에 가서 책을 팔리고 복구를 했습니다. 11 월에 키타카미시의 NPO 「헨즈」의 요청으로 카마이시시로 가서 삽으로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한, 외국어 지도 조수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는 한 곡을 부를 때마다 돈을 내어 기부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십자에 기부하도록 호소했습니다. 저도 고향인 슈룟프셔주의 지방 신문과 인터뷰를 하여 의연금을 호소했습니다.

이와테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테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 넓고 농장이 많은 이와테는 저의 고향과 닮아있습니다. 저는 이와테를 정말 좋아합니다.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공생을

자미 안 도루지 소론고씨

몽골 출신. 모리오카시 거주.



3 월말에 이와테·몽골우호협회와 이와테대학 몽골 유학생과 함께 피난소가 있는 모리오카 후레아이랜드 이와테에 갔습니다. 피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호슈르 (튀김 만두)와 보르초구 (도너츠) 같은 몽골 요리를 만들고

마두(馬頭)거문고 연주와 호미 (목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도 지진으로 인한 쇼크는 적지 않게 받았지만, 몽골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었고,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피난해 있는 아이들이 몽골 요리에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걸어 주어 반대로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학에서 공생환경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야마다쵸의 부흥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흥 계획을 알리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피난 장소로 통하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더불어 가면서 공생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하고 바다와의 관계는 남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부흥된 거리를 사진에

제이슨 힐씨

캐나다 출신. 하치만타이시 거주.



친구가 트럭을 가지고 있어서 이웃들과 함께 지원물자를 모아 전해주었습니다.

캐나다 친구로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메일을 받아서 동북으로 오라는 답장을 하였는데, 친구가 신혼여행을 이와테로 와 주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하치만타이시의 호텔도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테를 좋아해서 계속 이와테에 살고 싶습니다. 모두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고 부흥된 깨끗한 거리를 사진으로 찍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지진 직후에 피재지로 볼런티어를 갈 수 없었지만, 기회가 되면 볼런티어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인정NPO법인 난민지원협회

東京都新宿区四ツ谷 1-7-10 第三鹿倉ビル 6階

생활재건 취직을 향한 길

스미타초의 계센지방 산림조합. 그곳에서 필리핀 출신자 4명과 중국 출신자 5명이 홈 헬퍼 2급 자격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본대진재로 재해를 입은 외국 출신의 여성으로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일본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기 연습 최종일. 강좌는 특정비영리법인 난민지원협회(도쿄)가 피난소를 방문했을 때, 외국인 주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요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피재자를 대상으로 한 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어 문제 등으로 일을 선택할 수 없었던 외국인. 일본어교실의 재건이 부흥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홈 헬퍼의 지식은 취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 시부모님의 간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일본어를 가르치고, 책에는 일본어로 읽는 법을 써놓았습니다. 피재 외국인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응용할 수도 있다」고 사무국의 다나카 치에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강자인 나카노메 로사린다씨는 필리핀 출신으로 리쿠젠타카타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좌의 2기생. 필리핀 출신의 선배가 알려 주었습니다. 한자가 어렵지만, 모두 함께 공부하고 있고, 특히 실기가 즐겁습니다. 제 딸도 강좌가 있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다정한 헬퍼가 되고 싶습니다」

요시다 에스트레리아씨는 작년에 14년간 함께 살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간호를 통해서 의료 간호, 자택 간호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도 저에게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간호시설에서 현장 연수를 하면서 취직활동이 시작됩니다. 난민지원협회에서는 자격 취득 예정증명서를 발급하여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일하고 있는 오후나토시의 오이카와 요시코씨는 「지금까지 일본인과 함께 공부하는 중국, 한국 분들에게 가르쳐 본 적은 있지만, 필리핀 분은 처음입니다. 일본인에게도 어려운 전문용어라서 칠판에 꼭 읽는 법을 씁니다.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실기 연습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 출신 분들에게도 간호 담당자로서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장의 정보도 제공하고 수강생의 취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해일이 온 것은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비와 언젠가 세워질 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수강자들은 생활 재건을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NPO 법인 야마다쵸 국제교류협회

〒028-1333 下閉伊郡山田町後楽町 4-5 龍昌寺内

진재가 인연 교류의 시작

야마다쵸 국제교류협회 사무국은 이 마을 코라쿠쵸의 류쇼지에 있습니다. 동일본 대진재·해일로 이 절에는 약 80명의 주민이 피난해 왔습니다. 사무총장인 주지 시미즈 세이쇼씨는 진재 이후 9월 10일까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제대로 교제를 못한다면 해외 사람들과의 교류도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에 있는 것과 피난민이 가지고 온 것으로 피난생활을 하던 중, 텔레비전에서 전국 방송이 되어 국내외로부터 지원 물자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조사단도 피난민과 같이 숙식을 했습니다. 모두 성인이라서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하는 시미즈 씨.

절에 온 피난민 중 외국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마을에 남았고 수산가공회사 등의 연수생은 귀국했습니다. 해일로 숨진 야마다쵸 국제교류협회의 임원과 회원도 있습니다. 국제교류협회의 활동 재개는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에 야마다쵸를 방문해 교류했던 스코틀랜드의 보이 스카우트 홈페이지에 저의 안부가 실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협회 도서관 지원을 하고 있는 라오스에서도 위문이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방과 문구용품이 메시지와 함께 도착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절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는 영어 학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재가 인연으로 국제아동문고협회 영국지부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등으로 영국에 사는 일본인 아이들의 "우정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도 영어로 답장을 써서 사진과 함께 보냈습니다. 영국지부 대표가 영어 그림책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문화를 배우는 영국의 아이들을 위해 일본어로 된 그림연극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모리오카 국제교류협회와 공동으로 국제 포장마차촌을 개최했습니다. 이와테대학교와 모리오카정보비즈니스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5개국의 외국인들이 각 나라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리오카시와 자매 도시를 맺은 캐나다 빅토리아시에서 보내온 생활용품의 지원물자가 노래자랑 대회의 참가상이었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노래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외국인과의 교류를 즐겼습니다.

진재가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인연. 각자 무엇인가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교류가 국제교류의 시작입니다. 「이 진재로 모두가 고생하였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잊어버립니다. 지원해준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도설 진재 후 협회에서는

협회에서는 피해자의 외국인 상담원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달라지고, 피해자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8월 3일(수)

외국인의 마음 케어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모임」

모리오카 산사 오도리에 참가한 다음날, 복지 전문가도 함께 하여 진재가 일어났을 당시와 그 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체험한 괴로움과 슬픔에서 「앞으로 새로 오는 외국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월 8일(목)~11일(일)

외무성「진 JET 참가자 동북피해지초대프로그램」으로 진 중국인 국제교류원(CIR) 4 명이 이와테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자 피해지와 관광지를 방문. 피해지의 현상상황과 일본의 안전성을 중국에 전해주었습니다.



12월 1일(목)~2일(금)

국제교류기금「동아시아 차세대 리더 초빙 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 15개국 청년 26명이 참가. 국제교류센터와 토오노 마고코로넷, 카미이시에서 피해지의 대응 등을 배우고 피해 현장을 견학. 방재 관련 분야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일)

2011 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

방문자와 피해지의 아리가또(고마워) 메시지를 Facebook 으로 세계에 발신.



또한, 리쿠젠타카타시의 필리핀분들이 페스타 볼란티어 150명분의 필리핀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피해지에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원 월드 페스타를 연안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2월 11일(일)

2011 원 월드 페스타 in 노다

12월 18일(일)

2011 원 월드 페스타 in 카마이시

평성 24년 2월 5일(일)

2011 원 월드 페스타 in 미야코



평성 24년 1월 14일(토)、22일(토)、29일(일)、2월 4일(토)、18일(토)

외국인의 다언어 서포터 연수회

「국적과 관계 없는 외국인 네트워크가 필요」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 방재에 대해서도 테마에 추가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외국인의 네트워크 조성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Q 외국인 안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정촌(시읍면)에서 제공해주실 수는 없나요?

A 당협회에서는 「안부 확인」에 대해 피해지의 시정촌에 문의하였지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국제이주기관(IOM)의 귀국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A 페어 트레이드 단체 「네빠리·바자로」에서 필리핀인 2명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협회 소식

평성 24 년도, 본협회는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 「교류 지역 만들기」,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진재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이와테현의 국제 교류·국제 협력·다문화 공생 사회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계획(개요)	
<p>■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언어 홈페이지에 의한 정보 제공 · 다언어 모바일 사이트에 의한 정보 제공 · 다언어 국제교류정보지 「jien go」의 발행 ○ 일본어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 서포터의 등록·육성과 활용 · 일본어교실 개설 연수회 · 일본어교실 운영지원 ○ 외국인 현민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상담 실시 · 다언어 서포터의 등록·육성과 활용 ·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강좌·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 개최 · 국제 이해 워크숍 개최 ○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이해 핸드북 작성 	<p>■ 교류 지역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수집·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교류·협력·다문화 공생에 관한 도서·정보의 수집·제공 · 다언어 홈페이지에 의한 정보 제공 · 다언어 모바일 사이트에 의한 정보 제공 · 메일링 리스트 「이와테 플라넷」의 운영 · 다언어 국제교류정보지 「jien go」의 발행 · 기관지 「이와테 국제교류」의 발행 ○ 국제 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추진 · 센터 운영 서포터의 등록·활용 · 외국인과의 교류회 「챗토란도」의 개최 · 「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의 개최 · 원 월드에서 춤 추자 「산사 오도리」에 참여 · 「페어 트레이드 커뮤니티 in 이와테」의 실시·외국 문화 소개 강사의 파견 · 호스트 패밀리 등록·활용 · 이와테 국제화 인재의 등록·활용 · 국제교류단체 등에 대한 활동지원 ○ 국제 이해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전시 ○ 국제교류단체 등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관계단체 연합회의 개최 · 국제교류관계단체 등과의 공동사업 실시
<p>■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체험·유학 세미나 「이와테 청년 국제학교」 · 인턴쉽 프로그램 ·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 개최 · 국제 이해 워크숍의 개최 등 · 지역 국제화 리더 연수회의 개최 ○ 해외 연수원 등의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연수원 등의 서포터 ○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이해 핸드북 작성 	<p>■ 진재 피해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언어 국제교류정보지 「jien go」(임시호)의 발행 · 라디오를 활용한 정보 제공 ○ 외국인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재 부흥 관련 상담지원 ○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시 대응에 관한 조사 연구 ○ 체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재지역의 단체지원

여러분도 찬조회원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취지에 찬동하며, 사업을 지지해주실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조 회비는 현대의 국제교류·국제협력·다문화공생의 공익 목적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회원 특전

- ① 협회 발행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정보지「Jien go」
※학생 회원은 Email 매거진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협회기관지「이와테 국제교류」
- ② 협회 주최 행사 등의 안내를 보다 빨리 안내해 드립니다.
- ③ 협회 주최의 이벤트나 세미나의 참가비가 우대 할인됩니다.
- ④ 「에스닉 레스토랑 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⑤ 「여행우대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⑥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 ① 개인회원...각 3,000 엔
 - ② 단체회원...각 10,000 엔
 - ③ 학생회원...각 1,000 엔
- 협회의 소정 납부 용지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협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편집후기

■그 날로부터 1 년이 지났습니다. 웹에서 정보를 보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 주었습니다. 피제지역 현지에서 얼굴 보이는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있어도 "마음만 있다면"이라고 이야기해 준 우카씨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はお)

■그의 행동에서 영국 사람 특유의 「신사」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진정한 친절은 눈에 보이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친절히 지탱해 주는 것이더라는 말에 통감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鷹)

■만남 사람에게 두근두근, 대화에 두근두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느낄 수 없는 보물 발견! (non)

■라디오에서 어떤 소녀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면 좋을까요?」라고 묻자, 중년 남자가 「정답은 꾸준히 하는 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말 그대로! 혼자 크게 웃었습니다. (non)

■오랜만의 아이나, 더욱 오랜만의 축제에서 개성적인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웠던 사람들과 재회해서 즐거웠습니다. (大高)

■ 취재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할 입장이었지만 반대로 인터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역대 편집장들의 지원과 편집 위원들의 덕분에 무사히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美)

기부의 부탁

협회는 현민 분들이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또는 현재 거주 외국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국제협력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보다 충실히 진행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의 입장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이나 활성화에 기부했습니다. 협회의 활동을 장기적, 지속적,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재정 기반의 충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협회에 기부하신 분은 세법상의 손금 산입이나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테 국제 이해 핸드북

「세계는 친구」 2

이와테 국제 이해 핸드북 「세계는 친구」의 2 편이 나왔습니다.
다문화 공생사회를 소재로 한 교재 「'외국인'이 왔다!」「디에고 이야기」이외에 지난회의 핸드북 활용 사례도 제공합니다. 핸드북을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사진/ 2011 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 ~세계와의 연연 아리가또(고마워)를 세계에 발신~

(평성 23년 12월 4일 개최)

오른쪽위: 사진촬영/ 제이슨 힐씨, 제이슨 스미스씨
중앙: 사진협력/ 오션즈미야코 국제교류클럽,
오후나토시 일본어교실, 카마이시시 국제교류실,
야마다초립 야마다중학교, 리쿠젠타카타시 일본어교실
그 외에도 이와테현 연안지역에서 메시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협회 Facebook 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facebook.com/iwateia/02/>
앨범 타이틀 「Messages from Iwate's coastal area - 이와테 연안지역으로부터」

■ 국제교류센터 (아이나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 5F)

■개관일 매일 ■개관시간 9:00~21:30 ■휴관일 연말연시

편집 이와테국제교류편집위원회

편집장 나카무라 미카코

편집위원 오타카히사에/사와다테 부코/

타카노하시 요우코/무라이 요시코

어드바이저 다카하시 코우쇼

발행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20-0045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오리 1-7-1

TEL.019-654-8900 FAX.019-654-8922

인쇄 야마구치호쿠슈인쇄주식회사

〒20-0184 모리오카시 아오야마 4-10-5

TEL.019-641-0585 FAX.019-648-1026